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세계 유심세계 둘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

☞ 21면에서 계속

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태어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허허허.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실에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 미래로 해서 한번 쓱 돌아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서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돌아 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난다든가 또 고양이로 태어난다든가 하는데 그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을 지켜 준다고 그 집 가서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을 고치다가 보면, 천석꾼이다 뭐, 만석꾼이다 하고 그러다가 아, 집이 헐어져서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아, 그놈의 걸 잘 해서 딴 데로 옮겨 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싹 망하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 그 과보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 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번 했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르는 거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 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건 소용없죠. 그냥 목을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어 버리죠.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를 콧잔등이를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은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엉엉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째에 주의해라. 죽여 놓은 것도 많은데 생생한 거 먹는다고,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깐요. 내 몸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재 못 하고 사는 거죠.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 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지옥이죠.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의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홀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주 그 괘씸스럽죠, 자기 깐에는요.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괘씸스럽고 그렇죠.

또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우니까 '이놈 자식,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그래서 분이 나서 친척 집으로 가면 아, 친척 집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길 가도 그러고 저길 가도 부대끼고 그렇게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끼는 겁니다. 집집마다 말입니다.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먼.' 하고, 허허, 한탄들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만날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하시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식과 위로 부모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자식한테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꾸 마음의 주인공에다가 지극하게 놓아야 되겠죠. 그 자식의 주인공도 있을 테니깐 말입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자꾸 놓으면서, 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해 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요놈의 새끼야, 그러냐 마냐, 어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냐!" 하니까 이거는 더 빗나가요. 그냥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음 거슬리지 않게 해 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거 거슬리는 말씀 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렇게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합죠 하고 여기다 놓고서는 잘되게끔 돌려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되라고, 마음으로는 잘되라고 하는 거지 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거기다 놓고 어머님이 잘되라고 하신 거니까 잘돼야겠다 하고선 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은 양쪽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똑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 이러고 대드니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남편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캠핑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웃고 즐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찧으며 이러구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요, 백종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남한테 모함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자연적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하게 되죠.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돼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깐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우씨 얘기도 하구요. 이제 무우씨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 어딨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백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거 그대로가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 세계, 유심 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 세계 유심 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종이죠. 허허허.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권을 얻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말은 이렇게 허명하게 허실하게 했지만요, 듣는 분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